

“푸드플랜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과정”

농촌진흥청 ‘푸드플랜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세미나 성료

농촌진흥청과 지역농업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푸드플랜의 지역 농식품 생산, 소비 순환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지난 13일 농촌진흥청 세미나실에서 ‘푸드플랜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이라는 세미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제발표는 서울시 배육 병 먹거리정책지원관이 서울시 사례를 통해, 푸드플랜의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2년간의 준비를 통해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급식의 영역을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다.

현재는 서울시 각 구와 지역의 시, 군이 1:1로 연계하여 안전한 먹거리,

울바른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완주군 농업농촌식품과 송이목 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자치, 임경옥 주무관의 사례발명이 있었다. 완주군은 2016년부터 세운 먹거리 계획과 전수조사를 바탕,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관련부서와 협력,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도시지역과 농업관련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경제영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설, 자원,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요소가 많다고 전했다. 김영일 전북농협경제부장은 도

단위 광역 푸드플랜을 조속히 수립하여 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정책과 조직을 결합, 융합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농업의 조직, 시설,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위태석 농촌진흥청박사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불류라며 강조하고 기존의 도매시장, 유통시설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며, “세미나 좌장을 맡은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이사는 푸드플랜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과정인 만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모델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과 지역농업네트워크가 지난 13일 농촌진흥청 세미나실에서 ‘푸드플랜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이라는 세미나를 열었다.

사법농단 더해 삼바 분식 수사?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결론 내림, 고발장 오면 배당... 서울중앙지검 유력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대로 이를 검토해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다.

다만 증선위 측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 고발장을 제출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에 따라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 고발이 이뤄지면 수사를 맡게 될 담당 검찰청이 정해질 예정이다. 검찰 내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배당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사건은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돼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과격 당시 관련 사안을 이미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 배당을 점치는 이 유다.

일각에서는 금융·증권범죄 전담청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는 서

울남부지검이 사건을 맡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배당이 이뤄질 것”이라며 “사건단체와 증선위 고발 사건이 중앙지검에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 있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주주 간 약정(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사건이 배당되면 관련 서류 검토를 거친 뒤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특수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수사에 본격 투입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기록 및 법리 검토 등으로 숨고르기를 하면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직결돼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용 산정과도 연관이 있어 다시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수사를 하며 이 부분을 이미 살폈다. /뉴시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지난 14일 전북은행 본점 21층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제15회 리더스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북도민 모두가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리더가 되도록’

전북은행, ‘도민과 함께하는 리더스포럼’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4일 전북은행 본점 21층에서 전북도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 함께하는 제15회 리더스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민주 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이자 소설가인 김홍신 교수를 초청,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단 한번 뿐인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강연으로 진행했다.

이날 김홍신 교수는 생각의 전환과 자존심 회복을 통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과 정치인, 소설가, 교수로서 겪었던 자신의 다양한 경험담을 생생하게 전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 모두가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에 앞장서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인문, 경제,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명사초청 강연과 참석자 상호간 교류를 통해, 전북도민 모두가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격월로 리더스포럼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은행 전북본부 9월중 전북지역 금융동향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2018년 9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전월보다 증가폭 축소(+4,926억원→+1,187억원)하고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은 감소로 전환(+2,938억원→-356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증가폭 축소(+1,988억원→+1,543억원), 차입주체별로는 기업대출(+2,950억원→+1,392억원) 및 가계대출(+1,641억원→+742억원) 모두 증가폭 축소했다고 15일 밝혔다.

9월중 예금은행 여신은 전월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8월+2,938억원→9월-356억원),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이 줄어든 데 주로 개인하여 증가폭 축소(+1,828억원→+259억원), 가계대출도 전월보다 증가폭 축소(+1,113억원→+249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월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은 전월보다 증가폭 축소(8월+1,988억원→9월+1,543억원)하고 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568억원→+841억원)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신용협동조합(+235억원→+92억원) 및 상호금융(+919억원→+337억원)의 증가폭 축소, 차입주체별로는 기업대출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1,122억원→+1,133억원)하였으나 가계대출은 증가폭 축소(+528억원→+493억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전북본부 ‘NH올원해봄적금’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목표를 향해 매일 도전(해봄)하는 고객을 위한, 올원뱅크 전용 금융상품인 ‘NH올원해봄적금’을 최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NH올원해봄적금’은 올원뱅크에서 ‘해봄하기’ 목표설정을 통해 연, 다이어트 등 본인만의 도전 목표를 설정, 매일 도전 성공할 때마다 간편한 버튼 클릭 한번으로 적금에 입금이 가능한 올원뱅크 전용 ‘해봄하기’ 기능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고객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NH올원해봄적금’에 ‘해봄하기’ 버튼 클릭을 통한 입금 실적과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을 기준, 최대 1.0%p의 우대금리의 혜택과 올원뱅크 전용상품 가입고객과 300만 회원달성 응원 댓글 작성 고객을 대상, 우대금리 쿠폰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